

### 동서발전, 화재피해 시장상인 지원활동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지난 13일부터 울산시 남구 소재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화재 피해를 입은 상가를 방문해 장보기 행사 및 부셔별 식사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장보기 행사는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 간 계속 된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달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 소매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시장에서 구매할 물품은 자매결연 복지센터에 전달하고 임시영업장 내 식당에서 부셔별로 단체 식사를 하고 있어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앞서 한국동서발전은 지난달 화재 직후 방수알차, 목장갑, 고무장갑 등 생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전달했으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명절 음식 꾸러미를 나눠주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상인들에게는 설 명절이 대목이었을 텐데 화재 피해로 인해 명절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을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단순 지원보다 현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하며 실질적



이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최근 퇴직한 직원들로 구성된 'EWP 시니어 청렴·봉사단'을 출범시키고, 합동 청렴 캠페인과 봉사활동, 지역 사회 대상 발전회사 홍보 활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EWP 시니어 청렴·봉사단'은 일단 한국동서발전 본사와 울산화력본부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점차 당진화력본부와 호남화력본부 등 각 본부 소재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석 기자 nicepen@

### 전력거래소, 차세대전력인양성반 수료식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력분야 청년인재 양성프로그램인 '제12기 차세대전력인양성반' 교육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전력인양성반' 교육과정은 전력산업을 이끌 차세대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매년 전국 대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과정을 수료해왔다.

특히 이번 제12기 교육과정은 150명 교육정원을 훨씬 뛰어넘는 400여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전력수요예측,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물론 NCS기반 채용 설명회, 외부전문가 취업특강 등 대학생들의 취업에 직접적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하고 알찬 교육내용으로 꾸며졌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올해 차세대전력인양성반 수강을 통해 절실히 원하던 취업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라며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뿐만 아니라 신입 직원과의 멘토링, 자기소개서 작성 등 다양한 취업 관련 특강을



통해 전력산업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2기 수료식에서 정인진 KPX교육원장은 "짧고 귀한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에 관심을 갖고 전력거래소 교육에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수료한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미래(차세대)는 매우 밝고 희망적이다"고 격려했다.

/김경석 기자 nicepen@

### 남부발전, 주민 참여 에너지도슨트 도입

지역주민이 직접 발전소에 대해 안내와 홍보를 담당하는 '에너지 도슨트(Energy Docent)'가 오는 3월 부산발전본부에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은 본부 인근 지역민 7명을 '에너지 도슨트'로 위촉하고, 최근 본사와 사업소에서 관련 분야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 도슨트는 미술관에서 작품 설명과 안내를 담당하는 도슨트를 발전소 견학프로그램에 접목한 것으로 발전소를 방문하는 학생·시민들에게 안내와 홍보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남부발전은 부산 사하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최근 발전소 주변 지역민을 대상으로 도슨트 후보를 공개모집했다.

이들은 에너지전환과 발전원리 등에 대해 실무교육을 받고 하동발전본부, 부산 르노삼성 등을 견학했으며, 2월말 최종 모의 발표회를 거쳐 3월부터 부산발전본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에너지 도슨트 교육을 수료한 윤지영 씨는 "우리가 쉽게 접하



는 전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원들의 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면서 "발전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전기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전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부발전 신정식 사장은 "에너지도슨트는 지역주민과 여성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국 사업소로 확대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정확한 에너지 정보 제공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석 기자 nicepen@

###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참관단 모집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19일 울산 울주군에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관련 '제2기 시민참관단'을 20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 시민참관단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행사다. 한수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관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1기 시민참관단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보다 10명이 늘어난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위해 총 4차례의 활동 중 1차례는 1박2일 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참관단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주요 건설공사와 핵심 설비 설치과정을 지켜보고, 내진시험과 공장 견학 등 건설과정 참관과 토론, 한수원 및 협력사 등 건설 공사현장 안전상황 점검 등을 맡는다. 시민참관단은 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민참관단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한수원 홈페이지(www.khnp.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참가비와 교통비, 식비 등 일체를 지급하며, 별도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신기종 한수원 신고리5·6PM은 "이번 시민 참관단 운영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전 건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안전하게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석 기자 nicepen@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